

용미리 석불 조성 연대 고려? 조선?

조선대 이경화씨 '명문·원정모 닮은 보개' 등 근거로 1471년 조성설 제기

학계 "검토 가치 있다-근거 미약" 조심스런 반응

경기도 파주 장지산 솔밭 가운데에 우뚝 서서 서울과 개성을 잇는 길목을 지키는 '파주 용미리석불입상(보물 제93호·이하 용미리석불)'은 고려시대가 아닌 조선조 조성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m가 넘는 큰 규모와 특이한 형상이, 지방화 때 다양하게 나타났던 고려시대 석불(또는 마애불)의 특징과 부합하는데다 조성과 관련된 전설의 배경이 11세기 여서 고려시대조성설에는 큰 이견이 없었다. 그런데 지난 4월 15·16일 통도사에서 열린 불교미술학회(회장 범해) 춘계 학술대회에서 이경화 조선대 강사가 조선조 조성설을 제기하면서 용미리석불의 조성연대에 학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경화씨는 조선조조성설의 근거를 용미리석불 측면 바위와 불신 하단에 있는 명문(銘文), 원정모를 닮은 보개(寶蓋) 등에서 찾고 있다.

조선연대와 기원론, 시주 및 화주 이름이 적혀 있는 명문에 따르면 용미리석불은 세조의 왕생정도를 기원하기 위해 조성된 것이며, 그 연대는 성화(成化·명현종) 7년(1471년·성종2년)이다. 양녕대군의 아들 함양군(咸陽君, 1416~1474)과 한명회 셋째 부인으로 추정되는 정경부인(鄭敬夫人)이 화주로 참여했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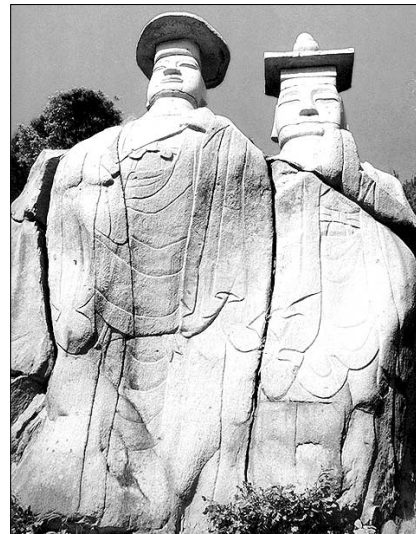
이경화씨가 이 명문을 처음 발견한 것은 아니다. 이를 처음 발견한 이는 박흥국 씨로, 1995년에 소개하면서 조선연대를 성화 1년(1465년)으로 읽었고, 그렇게 세

상에 알려졌다. 하지만 조성설(鑿像說)으로서의 타당성은 논증되지 않은 채 묻혀 버리고 말았다. 그 후 기존의 설은 유지됐고, 명문은 불상과 별개의 것 또는 후대에 새겨진 것으로 간주돼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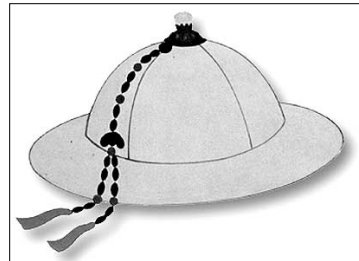
이경화씨는 그 명문을 다시 연구하고, 근거를 확보해 1471년 조성설을 들고 나온 것이다. 박씨의 1465년과 6년의 차이가 생긴 까닭은 박씨가 연대부분을 '성화 1년'으로 읽은 데 반해 이씨는 '성화 7년'으로 읽었기 때문이다.

명문이 용미리석불을 중수하고 새겨진 것이라거나 별개의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용미리석불이 세워진 파주가 세조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며 예종·성종비의 능이 부처님의 보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공유할 수 있었고, 이를 위해 대불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또 당시 권세와 재력을 겸비한 이들이 기존의 석불을 중수하기보다는 새로 조성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봤다.

명문이 용미리석불 조성과 함께 새겨진 것이라고 보는 또 하나의 유력한 근거는 원정모(圓頂帽) 형태의 보개다. 원정모는 원나라 귀족들이 쓰던 모자로, 고려말·조선초에만 관리와 승려가 많이 사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용미리석불의 원형 보개가 원정모가 맞다면 11세기에 조성됐을



원형과 방형(方形)의 보개를 쓴 석불이 나란히 서 있는 독특한 구조의 파주 용미리 석불.



원형 석불의 보개(사진 아래 점선)가 원정모(사진 위)를 닮아 있다.

가능성은 낮아진다.

1144년에 김부식이 찬한 '해동사신강기' 또한 이씨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준다. 이 기록은 용미리석불 인근에 위치해있는 해동사에 대한 기록인데, 대불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절뿐 아니라 숙박기 관, 행궁의 기능까지도 겸한 해동사를 설명하면서, 이정표로서 훌륭한 기능을 수행했을 용미리석불에 대한 설명이 누락됐다는 것은 당시에 지금의 용미리석불이 없었음을 반증한다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다.

이경화 씨의 조선조조성설에 대해 학계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강우방 이화여대 교수는 이씨의 연구에 대해 "원형 보개를 원정모라 단정 짓기에는 근거가 부족하고, 얼굴이나 신체에 관한 도

상연구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명문에 열거된 이들의 면면을 볼 때 중수기에 이름을 적어 넣었을 가능성은 적다"며 조선조조성설을 지지했다.

반면 문명대 동국대 교수는 "용미리석불이 조선시대 조성됐다고 볼 만한 근거는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불상 전면에 명문을 새기는 예가 없는데, 용미리석불의 명문은 전면에 있어 조상당시 새겨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명문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표했다. 또 "용미리석불은 엄청난 공력을 들여야 조성할 수 있는 대불이다"며 "만약 조선시대 세워졌다면 그에 관한 이야기가 조선실록에 나타나지 않을 리가 없다"며 조선조조성설은 근거가 희박하다고 말했다.

박익순 기자 info@buddhapia.com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12>

꽃의 과학

꽃의 계절을 맞이했다. 일차대전의 유럽의 황폐를 노래한 시인 엘리아스는 4월은 잔인한 계절이라고 표현했지만, 꽃을 대하는 동양인의 시각은 참으로 독특하다. 당나라 시인 유방평은 '춘원'이란 시에서 후궁의 안타까운 마음을 꽃에서 건져오고, 민족의 시인 서정주는 국화의 개화에서 무서리와 천동과의 인과관계를 발견한다.

일제강점기 한국인 최초 판사를 지냈던 효봉 스님은 제자들에게 '네가 고향을 떠날 때 매화가 피었던가'라며 원래 마을자리에 대해서 묻고 있다. <삼국유사> 만큼 신라인의 시각을 현대에 전해주는 시편이 있을까. 서정주 시인의 그의 1961년 발간한 시집인 <신라초>에서 옛 선인들의 정서를 한국 현대어로 풀어쓰고 있다. '꽃밭의

차라리 화엄적이다. 초등학교 자연시간에 부터 식물이 태양으로부터 빛이라는 파동의 형태로 에너지를 받아서 공기 중의 탄산가스를 영양분으로 만드는 탄소 동화작용은 차라리 마술에 가깝다. 탄산가스로부터 탄소를 추출하고 이를 수소와 결합시켜 폭발과 같은 탄수화물을 만드는 과정은 어떠한 화학공정보다도 정교하고 효율적이다. 식물은 이 영양분을 자신의 유전자들 남기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포함하는 동물들 위해서 가까이 내놓기도 한다. 포유동물이 바다로부터 나와서 인간의 대장정을 시작했을 때, 가장 생존을 도왔던 것이 바로 꽃을 피우는 속씨 식물이라고 과학자들은 생각한다. 식물에다 몸을 감추기도 하고, 열매를 따서 먹기도 했을 것이다. 뱀과 같은 파충류

봄꽃 소식에 설레일 때 꽃잎 들여다 보라 피는 것과 이를 보는 나는 같은가 다른가

독백'은 신라시조인 박혁거세를 처녀 임태한 사소가 산 꽃 앞에서 하는 독백 시리즈 중의 하나이다. 시에서 '꽃아, 아침마다 개벽하는 꽃아, 네가 좋기는 제일 좋아도, 물빛바다에 얼굴이나 비치는 해업도 모르는 아이와 같이 나는 네 달린 문에서 기대했을 뿐이다'고 산신 수행을 떠나는 마음을 읊고 있다. 꽃이 개벽하는 것을 천지가 개벽하는 것으로, 이 꽃잎이 열리는 세계에 들어가 지 못하는 신라인, 아니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로부터 약한 포유동물이 보호 받았던 추위를 우리는 유전자속에서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앞뜰에서 핀 작은 들꽃이 개벽하는 현상과 나라는 개체를 현재 있게 한 인연은 아무리 해도 떨어질 수 없는 오묘한 인연으로 얽혀 있음을 알 수 있다.

봄꽃 소식이 나를 들뜨게 만들 때, 그냥 지나치는 들꽃 앞에서 가만히 꽃잎을 들여다 보자. 꽃잎이 피는 것과 이를 보는 나는 과연 같은가 다른가. 이를 마음으로 느끼다 보면 어느덧, 우리의 슈퍼스타 의사 대사가 법정계에 서 하신 말씀 '일미진중 함시방(一微塵中舍十方: 티끌에 우주 포함됨)'의 경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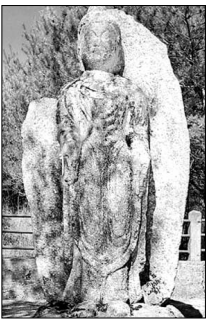


그림: 문병성

거창 농산리 석불입상 보물 지정예고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거창농산리석불입상을 보물로 지정예고했다. 이번이 지정예고된 거창농산리석불입상(경남유형문화재 제36호·사진)은 자연석을 다듬어 뒷면에 두발을 새겨놓은 1매의 대석과, 대석에 꽃을 수 있도록 광배와 함께 조성된 불신의 두 개들로 구성됐다.

문화재청은 "부본적인 파손이 있으나 아산의 구릉에서 원위치를 지키고 있는 귀중한 불상으로 규모가 크고 정제된 조각수법으로 가치를 갖는다"고 밝혔다.



주요 사찰 30곳 방화시설 현황조사

조계종 총무원(원장 법장)은 보물 건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을 대상으로 방화시설 현황조사 실시할 계획이라고 4월 20일 밝혔다.

사찰의 실태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정확히 밝혀내고, 동산문화재의 피난 또는 방재 체계에 대한 대안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번 현황조사에서는 △해당 사찰 시설 배치도 △방화선 설정상황 △소화장비 구비상황 및 작동여부 △소방로 확보상황 △경보시스템 구축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점검된다.

조사기간은 4월 18일부터 6월 18일까지 60일이며, 조사대상은 수목사 해인사 불경사 등 보물급 건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30여 곳이다. 총무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립공립법·문화재

보호법 등 관계법령 개정 기반을 마련하고, 사찰에 대한 지원 근거까지도 확립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국불교학회 춘계불교학술대회

한국불교학회(회장 이평래)는 4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42회 춘계전국불교학술포럼대회를 개최한다.

'한국 불교교육 체계의 재검토'를 주제로 진행되는 제1부에서는 권오민 경상대 교수와 김성철 동국대 교수가 각각 '교학과 종학' '재가불자교육의 체계화를 위한 시론'을 발표하고, 제2부에서는 성본 스님(동국대 교수)의 '선의 수행과 깨달음의 문제', 지창규 동국대 교수의 '천태사교의 사조사제', 이희재 광주대 교수의 '17세기 박세당의 불교관' 등 12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www.hanbuhak.or.kr, (02)2260-8507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TEL 02)732-1522 FAX 02)737-0697 ● 광고가격 1Box(4.4×4.4) 4만원 ● 계좌번호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사찰구함 부산시내 6억정도 011-9678-2340	행자모심 ▷ 고졸이상 만40세 미만 대학, 대학원까지 책임 후원함 02)917-3363 (정릉)	기독교신 및 공양주 법당 보살님, 행자님 모십니다 051)256-3483 010-3068-168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1-361-5055	공양주보살님 (급)구합니다 경남 함천 해인사 부근 대한불교조계종 010-9456-849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43)532-2072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50~60대) 내절처럼 운영하실 부전스님 모십니다 011-9155-8127
조용한 산사에서 공양주 하실분 초보자 구함 보사: 60만원 나이: 40~55세사이 054)637-1900	신심있는 행자,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전북) 010-3166-4166	조용한 암자에서 성실하고 신심있는 행자승이나 처사님을 모십니다 041)864-9143 011-392-6885	조용한 산속 천년된 석불이 나투신 기도사찰입니다 공양주보살님 기도스님 휴양하며 기도하실 처사님, 보살님 모십니다 031-884-4883 010-3339-1995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 50~60대 054)873-2216	부전스님 모십니다 031)719-0408	비구,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11-462-5275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6-635-6900
포교당 안내 ● 위치: 경기도 양평 ● 평수: 대지 160평 ● 건평: 65평(2층건물) 임법당 ● 가액: 1억6천 (답사후 절충 가능) ● 사정상급안내 011-9757-1333	사찰안내 ● 위치: 김천IC 15분거리 ● 부지 900평, 건물: 법당 20평, 산신각, 요사채 70평(1.2층) ● 특장: 백두대간, 경정지역, 계곡이 흐르고 지장기도 영험도량 ● 가액: 답사후 절충 054)431-3321 011-591-9339	사찰, 포교당안내 ● 위치: 경남 김해시 ● 대지: 86평, 건물: 3층, 각 30평(내부계단 평수 제외) 1층- 대웅공양실, 방2개 2층- 거실, 방3개, 3층- 법당 ● 답사후 절충, 꼭 필요한반만 연락바람 010-4810-6510 018-382-4537	포교당 안내 ● 위치: 성남리라 밀집지역 ● 법당, 주방, 거실 넓은, 방1개, 배란다, 45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500만원 (휴일지급가능) 010-8678-8602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통영시 인근섬 ● 대지: 120평, 방: 200평 ● 요사채 18평(방4개) ● 법당: 30평(삼존불 각단행화) ● 특장: 불심있는 지역으로 포교불사에 관심있는 스님 적합 ● 가액: 보증금 1억6천 ● 답사 후 가액 절충 가능 011-9576-1648	사찰(급)안내 ● 위치: 강원도 최고의 관광지 기도처 ● 법당, 요사채 집기일체 양도 ● 가액: 14억 ● 답사 후 가액 절충 가능 010-6248-7345	포교당(급)안내 ● 위치: 대구 동대구역 옆 ● 건물: 방2, 사무실1, 지하(20평) 보일러난방 ● 법당: 30평(1층) ● 특장: 동대구역에서 2분거리(교통편리) ● 가액: 보증금 7000만원 월 15만원, 시설비 1300만원 011-829-9120	포교당(급)안내 ● 위치: 경북 청도군 각북면 ● 대지: 600평, 요사채(10평) ● 건물: 30평(방3, 욕실, 주방) 2층 증축가능, 심야전기 ● 특장: 대구에서 30분거리, 수양, 기도처로 최적지임(식당영업권 허가) ● 가액: 2억1천만원(대출 7400만원) 010-4873-2071